

## 제 68차 IFLA를 다녀와서

오 인 회\*



〈개회식 리셉션 장소인 글래스고과학센터  
앞에 모인 대회 참가자들〉

사내의 유일한 자료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도서관인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껴오던 차에 도서관협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작년부터는 전국도서관대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또, 매년 개최되는 IFLA대회에 도서관협회를 통해 참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폭넓은 경험을 통해 업무에 대해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참가를 희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참석할 수 있었다. 입사 7년만의 첫 해외출장이면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어서 무척 기대되고 흥분되는 준비기간이었고, 한편으로는 한국

참관단 내에서는 회사를 대표하고, IFLA대회 내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무척 긴장되고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처음 만나는 분들도 낯설지 않았고 서로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긴장감을 덜 수 있었다.

행사는 크게 컨퍼런스, 전시회, 견학, 기타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IFLA 대회 개회식 및 저녁 리셉션은 모든 참석자가 모이는 자리였다. 그곳에 모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대회기간 동안 모두가 자신의 일에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진지한 자세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도서관을 열심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사서직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졌고 그런 모습만 보아도 나 역시 자부심이 우러났다.

이번 대회는 18일에 총회 및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참관단은 19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에 맞추어 18일 밤에 도착, 19일 아침에 일정을 시작했으나 주요 주제발표회나 워크숍의 참가인원이 제한된데다가 예약이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웠다. 추후에는 세미나 참가를 고려하여 하여 일정을 조금 앞당기면 좋을 것 같다. 주제발표의 경우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의 사례발표가 많아 업무에 관한 경험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 관련업체의 전시회는 책자형태의 자료판매 및 관리형식에서 벗어나 각종 전자정보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전자책, 전자도서관 솔루션 등을 전시하여 자료형태 및 도서관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각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도 전시부스나 홍보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용자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고 홍보하는 모습에서 자료실의 이용자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 방송위원회 자료실

전시장에서 대학은사님을 만나 뵈게된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신리며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대회진행 모습과 전시회장 곳곳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대회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영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등을 견학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 있는 특징적인 장서와 소장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시내 곳곳에 특정주제의 도서관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도서관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국 국가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은 오래된 자료를 보존함에 있어 여러 가지 특수한 시스템과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1823년 조지 4세가 기증한 65,000권의 장서로 구성된 The King's Library는 도서관 중앙의 특수서가에 진열해 놓아 신·구의 조화가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Turning the Pages라는 독자개발한 프로그램은 희귀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그 이미지를 컴퓨터화면에서 책장을 넘기듯 볼 수 있게 하여 소장자료의 보존은 물론 전시효과도 높았다. 또한 이용자가 요청한 자료를 지하서고에서부터 이용자가 있는 열람실까지 자동으로 운반해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이용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영국 국가도서관은 단순히 자료의 납본 및 보존만이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개발과 소장자료의 홍보 및 활용, 그에 필요한 기술적 시스템을 고루 갖추고 있어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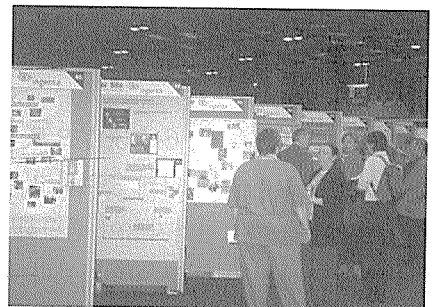
도서관협회에서 미리 참석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회전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수록한 책자를 나누어주어 준비기간과 참가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IFLA 홈페이지에서 미리 관심있는 분야의 주제발표 자료를 출력하고 일정을 체크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해간 것과 현지에서 참석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통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영어라고는 해도 스코틀랜드의 강한 억양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영어에 좀더 능통했다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대회에는 도서관협회 주관 참석자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정부와 학계에서 개별적으로 참가한 경우도 많아 우리나라도 국제도서관계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 IFLA 대회와 관련한 활동은 있었지만, 전체 참가자에 대한 한국도서관계의 홍보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라도 홍보활동을 벌이면 좋을 것 같다. 대회운영을 위하여 전·현직 사서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2006년 IFLA 대회를 위하여 우리나라 사서들도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여 영국의 도서관을 체험하고, 세계 도서관 관련업체를 접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자료실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IFLA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계의 도서관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스터 세션을 참관 중인 대회 참가자들)